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9호

'회장 입김' 배제한 추천위원이 각 1~3명 추천하면 공정위 구성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구성 본격화...추천위 단계부터 '혁신'

이동철 연합뉴스기자

"여성의 섬세함으로 체육인 가족 신뢰-의지할 엄마 같은 존재 될 것"

105년 만의 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 김나미 "헌신할 기회 영광"

이동철 연합뉴스기자

이현옥의 장애인스포츠 이야기

장애인스포츠 인권, 길을 묻다

신금희 에이블뉴스 기자

'장애가 있어서 사고날 것'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야

'사고날 것'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먼저 찾자

박관찬 더인디고 기자

한국일보 취재 종합

채용 특혜 의혹 안동시체육회, 지원자와 골프여행

권정식 한국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1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구성 본격화... 추천위 단계부터 '혁신'

이기흥 전 회장 시절 '불공정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유승민 회장의 변화와 혁신 기조에 맞춰 탈바꿈한다.

대한체육회는 기존 스포츠공정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28일 대의원총회 때 끝남에 따라 새 공정위 구성에 착수해 추천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회에서 공정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공정위가 특정인의 연임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때 "스포츠공정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질타를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 기관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공정위 개혁의 핵심이 인적 쇄신에 있다고 판단해 위원 선정에 회장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기흥 전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인사가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셀프 심사'로 이 전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해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변화를 준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정부와 체육회 유관 단체에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새로운 추천위를 만들고, 해당 위원들이 각각 1~3명 추천한 각계 전문가로 새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2년 임기의 스포츠공정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과 인권 전문가, 스포츠언론인, 체육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돼 있다.

새로운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구성을 완료한 뒤 다음 체육회 총회 때 구성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105년 만의 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 김나미 "헌신할 기회 영광"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입니다. 체육회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체육인 가족 모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1920년 조선체육회를 포함해 대한체육회가 출범한 10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나미(54) 전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은 12일 강한 책임감과 함께 엄마 같은 섬세함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나미 사무총장 내정자는 알파인 국가대표로 활약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김 총장 내정자는 1972년 알프스스키장을 개장했던 아버지 고(故) 김성균 씨의 뜻에 따라 어릴 적부터 스키를 탔고 아홉살 때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로 유학을 가 고교과정까지 마쳤다.

16세 때 알파인스키 국가대표로 발탁돼 전국대회에서 88번이나 우승, 국내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1990년에는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사회체육과를 졸업한 뒤 다시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국립스키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06년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이자 역대 최연소로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기획 담당 부회장에 올라 세 번 연임하며 12년간 활동했다.

국내 무대에서도 정책 기획 및 조직 운영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부회장을 지냈고, 2009년부터 2년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에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제3대 사무총장에 선임돼 2016년까지 행정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김 내정자는 대한체육회 변화를 기치로 제42대 회장에 선출된 유승민 회장으로부터 사무총장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

그는 "앞으로 유승민 회장님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 외교를 강화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스포츠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문1) 2025년 첫 주말입니다. 장애인스포츠계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입니까?

- 새해에는 스포츠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 목표가 수립되지만, 매년 달라지지 않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성적을 내야하고 정책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우선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엘리트 선수든 일반 장애대중이든 인권을 존중받고, 그 바탕 아래 움직이는 2025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2) 새해 첫 이야기는 '인권'이군요. 스포츠인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 스포츠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스포츠는 스포츠 인권과 함께 '장애인인권'이라는 이중의 잣대가 있습니다. 사실 선수 이전에 장애인으로서의 기본인권이 갖춰져야 스포츠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연말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장애체육인 선수(3,300명)와 지도자(300명), 심판(400명)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모바일 조사, 현장 방문조사와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비율은 선수 27.1퍼센트, 지도자 34.6퍼센트, 심판 20.6퍼센트였습니다. 선수들이 답한 인권침해 직접경험은 '불공정한 경험'비율이 14.3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동권 및 접근권' 12.4퍼센트, 조직 사유화 7.4퍼센트 순이었습니다/목격 비율은 선수 39.1퍼센트, 지도자 43.1퍼센트, 심판 28.8퍼센트였고, 인권침해 고통 정도는 지도자, 선수, 심판순으로 지도자의 심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권침해시 무대응했다는 응답이 40퍼센트에 달했는데, 선수들의 경우 '어떻게 할지 몰라서'라는 답변이 많았고, 지도자, 심판의 경우 '보복,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율이 높았습니다.

문3) 인권 침해 현장을 보고도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만큼의 심적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고통 정도가 제일 높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 일반적으로 지도자와 선수는 갑을관계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스포츠는 다소 예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권침해 고통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통창구가 있는 선수와 달리 소통창구가 없이 부모와 선수, 소속팀 상사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선수들은 중도장애 비율이 높다보니 연령이나 경력 측면에서 지도자가 상대적으로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 인권 문제는 사실 4~5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선수 인권 문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음에도 지도자 인권은 변화가 없는데 이건 사실 문제죠,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사 연구 결과에서는 신체폭력 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이점은 일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진짜 낮을 수도 있고, 점점 고도화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인권침해시 무대응하는 이유로 선수들이 답한 '잘 몰라서'의 경우는 교육을 하면 되는데 지도자, 심판의 경우 '해도 안될 것 같다', '불이익,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답변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몽과 교육' '감시와 처벌' 이런 수준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스포츠계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4) 장애인스포츠는 두 개의 인권 '스포츠와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발표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까?

- 네,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뇌성마비 보치아 선수(B1)의 경우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면 경기력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문제가 생겨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으로 본인의 공을 표적구에 가까이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종목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의 심층면접에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선수의 '신체적 능력을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언급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전문성 부재 이를테면 수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배드민턴 안세영선수가 지도자와 소통 못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안통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심지어 상지절단 장애인에게 용변처리의 어려움을 빚댄 따돌림을 한다거나 여성선수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젠더감수성,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여성 선수를 다른 선수와 방을 같이 쓰는 합숙훈련에 아이와 들어오도록 지시한 지도자의 몰이해 등등 듣는 것 만으로도 불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5) 그렇군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이루어진 항목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번 조사 항목중 ‘장애인 스포츠 불공정 경험’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항이 ‘이동권과 접근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물리적·환경적 접근의 제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훈련과 경기에 참여하려면 집밖으로 나오기 위한 동선이 모든 요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과를 시작하려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대나 샤워부스가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이든 본인의 차든 이동을 해서 체육관에, 운동장에 도달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별스럽지 않고 당연한 일상생활을 위한 소규모의 인프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조건과 권리가 바로 ‘이동권과 접근권’입니다.

접근성은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더 요약한다면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접근성은 비단 물리적인 접근성뿐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상의 기점으로 보기에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스포츠활동과 인권으로 연결하는게 필요합니다.

문6) 이동권과 접근권은 장애인스포츠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군요. 그렇다면 장애인스포츠 환경, 특히 인권문제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십니까?

- 좀더 넓은 광의 개념으로 장애인스포츠 인권이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계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빈곤 유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언급되는게 ‘사회적 배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와 빈곤 사이의 관계는 돌고도는 복잡한 관계이고,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 역시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따라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빈곤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를 겪으면, 개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적 섬’에 갇히게 됩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기존중과 사회적 역할은 우리사회가 뒷받침 해줘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장애인은 자존감이 높고, 생활력이 있으며 운동을 직업으로 삼아 소득을 창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회구성원으로 만들어 ‘사회적 섬’에 갇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빈곤으로 빚어지는 사회양극화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권 측면에서 안전한, 그리고 문턱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스포츠문화와 복지’라는 접근으로 장애인스포츠를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사고날 것’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먼저 찾자

A초등학교의 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승마교실을 신청한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의 신청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종종 장애가 있는데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고, 진행하더라도 추가 인력(사이드워커)을 배치해 단독 승마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비용은 학생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의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서 지난 2월 5일 학교 측의 행위는 차별이며,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더인디고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장애학생, 더 나아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사회의 부족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본다.

“다치는 거 아니에요?”

위 사건에서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보면 학교측에서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고 했지만, 장애학생의 참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장애인이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장애인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보다 장애로 인한 ‘사고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는 장애인 B 씨는 “지금까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사고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새로 등록하기 위해 방문했던 헬스장에서는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부한 적이 있었다”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건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날 것 같으면 헬스장 측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지 왜 사고난다고 단정짓고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B 씨는 “그동안의 제 경험상 장애인이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하면 관계자들이 걱정이나 우려의 시선을 먼저 보내고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부터 한다”면서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부터가 아쉽기만 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청각장애가 있는 C 씨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간 적이 있는데, 교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동행인이 어떻게 타는지를 ‘먼저’ 보고 다음에 타겠다고 하니 교관들이 ‘장애가 있으니 겁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하며 “겁먹거나 무서워서 동행인에게 먼저 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단정짓고 말해버리는 교관들에게 화가 났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 씨는 “운동하다가 사고는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비장애인도 날 수 있다”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이 어떻게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는 걸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스포츠계 종사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을 의무가 없다?

B 씨에 의하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헬스장 등록을 거부한 헬스장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해당 헬스장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이해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법정 의무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B 씨는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할 경우 50% 할인되거나 무료도 있지만, 정작 관계자가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도 꼭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D 씨는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라면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들을 텐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그냥’ 들었거나 처음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면서 “애초에 장애인이 운동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헬스장의 경우, 상근 트레이너가 있더라도 한 헬스장이 아닌 여러 헬스장에 등록해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식의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라도 단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트레이너도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다.

D 씨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이 스포츠활동을 ‘관람’이 아니라 ‘직접’ 하는 활동을 많이 개설하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1287?fbclid=IwY2xjawJEohlleHRuA2FbQlxMQABHYMrnPolbkdmvXSRD0br14fKFHsjZ2cKsf3dHvtHeRVNQn_k6RnTZf1ilg_aem_LuKPeah4nhoUdzTGsApTPA

채용 특혜 의혹 안동시체육회, 지원자와 골프여행

무자격자를 7급 행정직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안동시체육회가 면접을 앞두고 시체육회 인사위원장과 임원, 지원자 등이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회 인사위원장과 부회장, 이사 등 6명은 지난해 9월 18~24일 5박 7일간 태국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때는 7급 행정직 특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때다.

이들 중 지원자와 다른 1명은 골프 대신 현지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7급 행정직 채용을 앞두고 동료 직원에게 "다음 기회에 도전해 보라"며 양보할 것을 종용했다는 설도 나온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7급이라는 직급은 무리이고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결국 명예롭게 퇴직도 못하고 중도에 도태될 수 있다"고 윗선에 건의하자 "'인사는 내 고유 권한인데 너희들이 왜 따지느냐'고 강압적인 핀잔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체육인 김모(57)씨는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행정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접 받을 수 있는 채용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 "현실의 사태에 대해 별로 할말이 없지만 도민체전 준비가 긴박하고 잇따라 시민체전 등 굴직한 행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면서 "전 체육인들이 긍지를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수원시 학교 운동장·체육관 개방 추진...시·교육청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7094900061?input=1195m>

경기 기회경기관람권, 올해부터 국가대표 경기 관람 가능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5520>

정읍시, 봄맞이 체육시설 정비...바닥·조명 등 교체로 편의 제공

<https://www.news1.kr/local/jeonbuk/5721219>

신상진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개선 최선 다하겠다”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501108?ref=naver>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장학생 선발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31413522220921>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다음달 로잔서 바흐 IOC 위원장 면담

https://biz.chosun.com/sports/2025/03/15/R7KQ4KFER5CMTH3XPAOSAWIEA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1조3215억 지원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31614081463496>

가평군 '장애인 우선' 반다비 체육센터 2곳 건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65000060?input=1195m>

유정복,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운동은 밥이다’ 철학에 의기투합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31702910697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